

한국교육학연구 제20권 제3호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4. 10. Vol.20. No.3. pp.179-199.

슈타이너 “테오소피(Theosophi)”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전일균(강릉원주대학교)

[요 약]

1904년에 출간된 “테오소피(Theosophie, Theosophy)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이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체 그리고 초감각 세계로의 길에 대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테오소피”는 인지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슈타이너 연구의 출발은 “테오소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슈타이너 연구의 핵심 저서라 할 수 있는 “테오소피”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슈타이너 사상의 원류를 찾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테오소피”가 저술되기까지 슈타이너 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테오소피”에 기술되어 있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의미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를 탐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제시한 육체와 영혼, 정신세계를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주제어 :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신지학, 테오소피, 발도로프 교육

I. 서론

본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 Anthroposophie)적 세계관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영혼과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정신과학으로서의 인지학은 이러한 사상의 기초가 된다. 슈타이너는 육체와 영혼,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체계를 통하여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도외시 되었던 초감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체계적 탐구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우주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을 찾고자 하였다(전일균, 2013; 140).

1904년에 출간된 “테오소피(Theosophie, Theosophy)¹⁾”는 슈타이너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이다. 슈타이너는 여기서 새로운 인식 체계로서의 인지학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설명한다. “테오소피”는 인간의 본질, 정신세계의 의미와 역할, 육체와 영혼 및 정신세계와의 관계성, 초감각의 세계로 가는 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의 부제를 ‘인간의 운명과 초감각 세계의 인식에 대한 소개’²⁾라고 하였으며 서문을 통하여 이 책의 목적은 “초감각세계의 영역에 대한 기술(a description of some of the regions of the supersensible world)”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Theo, vii). 그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고차원의 세계에 대한 상상의 그림을(Theo, 154) 보여줌으로써 감각 저편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발도로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으로 불리는 슈타이너의 교육론은 이러한 “테오소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의 내적세계를 인지하고 계발함으로써 전인적이며 총체적 인간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테오소피”를 통하여 제시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물질 중심의 현대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슈타이너의 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슈타이너 사상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테오소피”일 것이다. 슈타이너 연구의 출발은 “테오소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슈타이너 연구의 핵심 저서라 할 수 있는 “테오소피”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1) 본 연구에서의 텍스트는 영문판(*Theosophie*, translated H.B.Monges, Theosophy. Anthroposophic Press. 1971.)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독일어판(*Thosophie*, Dornach/Schweiz: Rudolf Steiner Verlag, 1990)과 한글 번역판(양역관 외 옮김. **신지학**, 서울: 물병자리, 2001)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테오소피”의 모든 인용을 ‘Theo’로 약어 표시하였다.

2)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 Einführung in übersinnliche Welterkenntnis und Menschenbestimmung.

인지학으로 대표되는 슈타이너 사상의 원류를 찾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슈타이너 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테오소피”에 기술되어 있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의미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를 탐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제시한 육체와 영혼 및 정신세계를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사상 및 교육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테오소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슈타이너 사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테오소피”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통하여 슈타이너의 사상과 발도르프 교육학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 슈타이너 사상과 “테오소피”

인지학으로 대표되는 슈타이너의 사상은 물질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모든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된 물질적 감각세계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서부터 정신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슈타이너는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 의욕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사상적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그 결과로 1890년대까지 내세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간의 경험적 인식이나 세상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기독교의 신비학적 요소가 아니라 신비적 체험 방법 및 현대 자연과학과 신비한 체험 간의 관계였다(Lindenberg, 1998; 104-105). 10대 후반 슈타이너는 피히테(J.G. Fichte, 1772-1874)의 과학론과 그가 요구하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그는 자아(ego)가 활동할 때, 비로소 정신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Steiner, 1977; 53-54)는 사실을 얻게 된다. 18세기 이후 보편화된 과학적 인식의 세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인간의 자아를 슈타이너는 관념론의 전통을 빌려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 들인 것이다. 그 후, 슈타이너는 헤르바르트 철학을 공부하게 되며, 아울러 자신에게 괴테를 만나게 해 준 슈뢰어(Karl Schröer)와 짐머만(Robert Zimmermann)을 통하여 아름다움(美, beauty)이라는 감성 체제를 이해함으로써(Steiner, 1977; 58) 인간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간다. 또한 슈타이너는 현대 자연과학의 의미에서 운영되고 있던 빈의 의학계와 여러 번 접촉을 갖게 되며, 공과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동물학, 광물학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Lindenberg, 1998; 30-32), 이는 정신과 자연의 관련성에 관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 후, 슈타이너는 자연과학에 기초한 괴테의 감각세계와 초감각세

계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괴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전체를 통해서만 각각의 부분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으며, 기계론적 세계관 대신 자연의 궁극적인 신비를 밝힐 수 있는 과학을 찾고자 하였다(정운경; 2009, 189). 이것은 기존의 물리적 세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슈타이너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관념 혹은 정신의 세계에서 접하는 것들이 감각의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정신과학의 존재이유이기도 하였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정신세계와 감각의 세계는 플라톤이 분류한 것과 같은 이원론적 세계(이데아와 실재)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던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감각에 의하여 인지되고 증명될 수는 없는 관념의 세계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신비적 혹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후에 정신과학으로써의 인지학의 기초가 된다. 슈타이너는 인간이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순간, 그 동안 추상적으로만 인지되던 인간의 영혼 즉 사고(thinking), 감성(feeling), 의지(willing)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man as spirit)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Steiner, 1977; 92).

이러한 사상적 탐구 과정에서 그는 ‘신지학’(Theosophie, Theosophy)을 접하게 된다. 신지학은 신(神, God)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heos’와 지혜(智慧, wisdom)를 의미하는 ‘sophia’에서 파생된 언어로써 17세기 이후 신과 우주의 관계 해독을 통하여 얻어진 신의 본질에 관한 추론적 지식(analogical knowledge)을 강조 한다³⁾. 신지학에 대한 슈타이너의 관심은 신비적인 체험 방법이나 현대 자연과학과 신비한 체험 간의 관계였다. 인간 내부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인식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며, 우주에 대한 인식이 자기 깨달음으로 바뀐다. 여기서 인식이란 정신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깨달음이므로 인식 속에서 사물의 본질은 우리 고유의 본질과 연결된다고 슈타이너는 생각한다(Lindenberg, 1998; 105-106).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체험의 과정이 그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14세기 이후 종교개혁의 핵심적 과제였던 주관적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종교적 체험은 슈타이너가 생각한 인식의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에서의 신비적 체험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신비적 인식의

3) 19세기 후반에는 불교, 힌두 철학, 서구의 비교(秘敎) 전통(esoteric tradition) 및 신플라토니즘 등을 기반으로 블라바스키(H. P. Blavatsky)에 의하여 ‘신지학회’(神智學會, theosophic society)가 결성된다. 여기서는 특히 끊임없이 환생되는 육체의 윤회 속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의 문제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Craig ed., Vol.9, 1998; 363), 새로운 사상 체계보다는 모든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았고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과 자연·인간에 대한 보편적 개념들을 재강조 하였다(<http://timeline.britannica.co.kr>).

과정은 인간의 실재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슈타이너는 개인의 내적 깨달음을 신앙의 내용으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이를 지배하는 영혼, 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독자적인 사상을 키워가게 된다. 따라서 그는 신지학 모임을 통하여 피안의 세계에 관해 설명하던 방식 대신 신지학을 개개인의 개별적 인식 위에 세우려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당시 신지학의 대가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Lindenberg, 1998; 110-114). 이것은 슈타이너가 기존의 신지학과는 다른 형태의 사상적 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지학이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을 통하여 보편적 인간 의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점차 개별적인 인간의 인식으로 나아가 결국 자기 깨달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04년 출간된 “테오소피”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테오소피”는 신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신과학의 길을 여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슈타이너는 인지학에 관한 다양한 강연을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1912년 쾰른에서 인지학회(Anthroposophische Gesellschaft) 모임을 갖게 되고, 1913년 베를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며, 드디어 1913년 스위스의 도나흐(Dornach)에서 최초의 인지학회를 설립한다(Steiner, 1977; 419). 인지학회의 목적은 “정신세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과 인간 공동체 모두의 속에서 영혼의 삶의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⁴⁾이었다(<http://www.waldorfworld.net/>). 슈타이너 자신도 ‘금세기 초부터 시작된 인지학 운동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 삶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인간의 정신적 힘과 함께 성장해 왔다(Steiner, 1977; 364)’고 평가하고 있다. “테오소피”는 그것의 사상적 기초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테오소피”에는 그 제목과는 다르게 신지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슈타이너가 스스로 만든 인지학적 세계관의 핵심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 정신이라는 세 가지 세계,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만들어 놓은 초감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방법 그리고 감각 저편의 세계로 가는 방법 등이 설명된다. 본 연구의 텍스트로 사용된 1922년 영문 개정판 서문에서 슈타이너는 처음 출간 후 1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학의 기본에 대한 “테오소피”에서의 사상은 별로 수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인지학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 사상을 논할 때, “테오소피”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된다.

4) An association of people who would foster the life of the soul, both in the individual and in human society, on the basis of a true knowledge of the spiritual world.

III. 테오소피에 나타난 세계관

1. 인간의 본질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코 물질적 존재로서의 육체가 아니었다. 육체를 제어하는 그 무엇이 함께 하여,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을 육체(Body, Leib), 영혼(Spirit, Seele), 정신(Spirit, Geist)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체라고 보았다. 인간에 관한 슈타이너의 첫 번째 의문은 육체와 영혼, 정신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육체적 존재와 죽음으로 표현되는 육체의 소멸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혼과 정신의 작용은 “테오소피”의 핵심 과제가 된다. 그 속에서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추론과 영혼, 정신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려고 하였다. 육체는 환경 속에 드러나 있는 인간의 모습(the things in the environment of a man reveal themselves to him), 영혼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모습(he links the things to his own being, through which he experiences ... in connection with him), 정신은 인간 스스로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what becomes manifest in him ... as a “so to speak divine being”)을 의미한다(Theo, 4). 물질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육체와 주변의 물질로부터 다양한 감성과 인상을 받아들이는 영혼 그리고 세계 속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은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감각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모습으로만 파악될 수 없다. 인간은 육체를 통하여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 몸 담게 되며, 영혼을 통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정신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의 세계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인지하게 된다(Theo, 5). 따라서 영혼과 정신을 거치면서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세계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통하여 내적세계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물질을 기초로 하는 자연의 세계와 구별된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에 대하여 내면 속에서 응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 간다(Theo, 9). 따라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세계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고유한 세계는 정신세계 속에 담겨 있는 자아(ego)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 인간은 자아를 통하여 정신세계가 보내는 메시지와 직관에 의하여 탐지된 물질세계의 정보를 자신만의 영혼의 세계로 가져오게 된다. 이를 통하여 “나(I)”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두 방향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며(Theo, 31-32), 비로소 나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게 된다. 슈타이너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

로 정신세계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나만의 세계, 그리고 물질세계 속에서 직관을 통하여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인적 인간으로 가는 길은 바로 정신세계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물질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⁵⁾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Theo, 2-3). 첫째,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로써 현재를 인식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세계를 목표로 삼아 끝없이 노력한다.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 “테오소피”에서 슈타이너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육체, 영혼,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로 파악하였다.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슈타이너의 관점은 능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존재이며, 주체적으로 이를 해석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외부와 독립된 독자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진화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진화론에서 강조하는 환경과의 관계성은 물질세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이러한 물질적 변화가 단지 외적 환경에 대한 적응 혹은 반응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세계가 행하는 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슈타이너에게 진화론은 단지 물질세계 만을 기초로 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인식론적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 자신이다. 인간 스스로가 보는 세계, 우주는 바로 내가 인식하는 세계의 첫 걸음이다. 이러한 인식은 흔히 ‘삶’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만 진리가 될 것이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인식의 대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그에게 신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이미 육체뿐 아니라 영혼과 정신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를 통하여 강조했던 인간은 육체와 영혼, 정신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존재였다.

5) 기(氣)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사상에서의 인간관은 슈타이너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음양론에 기초한 동양사상에서는 세계를 형이상학(形而上學)과 형이하학(形而下學)으로 구분한다. 이는 서양의 그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氣)에 기초한 동양에서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단지 형태의 차이일 뿐 모두가 형(形)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형(形)의 크기나 모습에 따라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단지 형이하학이 땅에 기초하고 있다면 형이상학은 하늘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혼백(魂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백(魄)은 몸, 형체로서 땅에 기초하며, 혼(魂)은 넋, 마음으로 하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인간이고, 죽음이란 혼과 백이 서로 분리됨을 의미할 뿐이다. 죽음 이후에 백은 땅으로 들어가 사라지게 되며, 혼은 공중(하늘)으로 돌아가 백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유학적 세계관)는 불교에서의 극락이나 기독교에서의 천당 등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형(形)의 형태로 존재하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김용욱, 2004).

2. 물질과 영혼, 정신세계

육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많은 오해와 함께 의문을 갖게 한다.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른 동식물 및 광물체와 겉으로는 전혀 다름이 없는데, 거대한 문명을 이루어왔다는 점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시각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인간의 육체는 광물, 식물, 동물적 모습의 세 가지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광물적 형식은 물질적 형태로만 인지되는 존재이며, 식물적 형식은 성장과 번식을 하는 생물학적 존재 그리고 동물적 형식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적 체험을 형성해 가는 존재로 구현되며 이를 통합하여 인간은 독자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Theo, 7-8)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를 단지 물질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한 것이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는데,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영혼과 정신이다.

“테오소피”에 따르면 영혼의 본성은 인간의 내면세계로서 육체적 본성과는 구별된다. 영혼은 감각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감성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가 생명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감성은 내면세계 즉 영혼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성을 통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이루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will)가 더해짐으로써 또 다른 외부세계를 지향하게 된다(Theo, 8-9). 감성을 기본으로 하는 영혼의 세계는 공감(sympathy)과 반감(antipath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은 영혼의 구성체(soul formation)가 다른 구성체를 이끌어 융합하려는 힘이며, 반감은 그와 반대로 다른 구성체를 물리치며 자신의 특성을 강조하는 힘이다(Theo, 80). 이런 점에서 공감과 반감은 인간의 감성 영역에 해당한다. 영혼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 속에서 욕망, 기쁨, 바람, 불쾌함 등의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물질세계의 다양한 변화는 영혼을 통하여 정신에 전달되며, 정신은 이를 바탕으로 물질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 정신과 육체를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⁶⁾(Theo, 87). 외적 감각을 통하여 내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의미이다. 영혼이 육체를 기초로 하듯이, 인간의 정신은 영혼을 기초로 한다(Theo, 10). 영혼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낸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결국 정신세계에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정신세계에는 물질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원래 모습(archetype)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과 생물의 모습은 이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Theo, 103). 물질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인간의 모

6) The soul i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spirit of man and his body

든 행위는 정신세계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구성체가 각각 어떤 단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육체와 영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구성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네 가지로, 그리고 일곱 가지, 아홉 가지로 분화시킨다. 물질로서의 육체는 생명체인 에테르체(Etheric body)와 결합함으로써 무생물의 광물질에서 생명을 지닌 인간의 육체가 된다.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감각체로서의 아스트랄체(Astral body)는 물질세계와의 소통을 통하여 감각적 영혼, 오성적 영혼, 의식적 영혼 등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혼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된다. 영혼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인간에게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형성시키며, 이를 통하여 단지 인간의 육체에 생명을 불어 넣었던 에테르체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자아를 완성하게 된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혼의 작용을 통하여 물질적 존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적 존재의 인간으로 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에서 설명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도표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Theo, 13-39).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물질	물질	물질적 육체	육체(body)	물질
에테르체(생명체)	에테르체(생명체)	에테르체(생명계)		생명
아스트랄체(영혼)	감각을 가진 혼체	아스트랄체(영혼계)	영혼(soul)	
감각적 영혼	오성적 영혼			
오성적 영혼	정신으로 가득찬 영혼			
의식적 영혼				
정신적 자아	정신적 에테르체 (생명체)	자아(정신계)	정신(spirit)	
정신적 에테르체(생명령)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정신적 존재				

슈타이너가 “테오소피”에서 제시한 인간에 대한 삼층적 구조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그 후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네 가지 기질(temperament)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아가 강한 아동은 우울질(melancholic temperament), 아스트랄체가 강한 아동은 담즙질(choleric temperament), 에테르체가 강한 아동은 다혈질(sanguine temperament), 물질체가 강한 아

동은 점액질(phlematic temperament)의 기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Steiner, 1992; 11-21). 아동들은 이러한 기질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기질의 차이로 인하여 인간은 서로 다른 특성과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기질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은 생물학적이며 유전적 요인도 아니고 환경적 요인도 아니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개체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게 된다.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기질은 부모로부터 받은 ‘나’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세계와의 만남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신과 생물학적 요소가 혼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교육학과 결합하여 아동들의 특성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도 하며, 발도르프 교육학의 교과 구성 및 교육과정의 기초가 된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를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은 어쩌면 그저 물질에 불과한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며,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거대한 인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신지학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양한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며, 이러한 형태를 정신적인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의 내면세계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최종인; 2004, 47).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근거에는 바로 육체와 영혼, 정신의 내적 관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지학에서는 영혼과 정신의 작용을 외적 형태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론적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학은 신지학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정신이 함께 하는 복합적 존재로 파악하며, 그 변화 과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학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간은 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육체와 영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구성체가 내적 관계성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며, 그 결과가 외적 형태로 물질세계 속에서 구체화 되는 가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지학이 현대의 경험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분히 신비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인지학은 결코 신비적이지 않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슈타이너는 “테오소피”에서 인간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정신과학이라고 했던 것이다.

3. 윤회와 새로운 인식의 길

인간은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감각을 통하여 외적 세계를 인지하고 내적 관점으로 이를 지각하게 된다.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극히 일부만을 보게 된다.

따라서 “테오소피”에서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육체와 영혼,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혼과 정신세계는 인간의 죽음 이후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슈타이너는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슈타이너는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란 육체적 기능의 변화’⁷⁾일 뿐이라고 말한다(Theo, 89). 물질세계에서의 육체적 기능이 정지된 이후,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감각은 그 어떤 정보도 영혼과 정신에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영혼과 정신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육체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의미 없게 된다. “테오소피”에 의하면 육체를 떠난 정신은 영혼의 세계와 연결된다. 이때 정신은 영혼과 함께 물질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감각 저편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물질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사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감각이 영혼에 남아있기도 하지만(Theo, 89-90), 물질세계 속에서 감각에 대응해 오던 대부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러한 물질계의 흔적을 버리고 본래의 속성을 되찾게 된다(Theo, 100).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육체를 떠난 정신은 물질세계에 머무는 동안 배웠던 모든 법칙들을 바탕으로 자신을 갱신해 간다. 물론 그 목적은 다음에 돌아올 물질세계에서의 삶이다(Theo, 113). 이것이 바로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윤회(輪回, reincarnation)의 한 장면이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세계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것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물질세계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소멸하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면, 정신은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속에서 다음 생(生)을 위한 갱신의 과정을 걷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육체적 존재로 탄생하게 된다. 윤회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 karma)에 의한 결과로서의 윤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불교에서의 윤회는 열반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열반이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번뇌의 윤회로부터 탈출하여 두 번 다시 생명을 갖지 않는 해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윤회는 열반으로 가기 위한 길이며 이를 통하여 개체로서의 존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Baker, 2012, 90-92). 이에 반하여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윤회는 끊임없는 갱신의 과정이다. 물론 슈타이너는 “테오소피”에서 인간의 유전적 과정에 대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윤회로 표현되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모습은 다른 동·식물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종(種, species)은 유전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를 통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Theo, 48-52). 인간은 윤회를 통하여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에서의 경험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영혼을 통하여 전달되는 물질세계에

7) Death, regarded as a fact in the physical world, signifies a change in the functions of the body.

서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재탄생해 간다. 정신세계의 재생 과정이 바로 슈타이너가 “테오소피”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회의 과정인 것이다. 윤회의 법칙은 인간의 정신이 전생에서 얻었던 행위의 결과(업, 業)를 다음 삶 속에 가져오는 과정이다. 이 속에서 인간의 육체는 유전법칙에 따르지만, 영혼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간다. 영혼이 만들어 가는 운명이 바로 업이다. 이러한 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은 윤회의 법칙을 갖게 된다(Theo, 68). 따라서 영혼과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각 저편에서 영혼과 정신이 만들어 가는 고차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진다. 이러한 정신의 갱신 과정은 감각세계에서도 인지될 수 있다. “테오소피”에서는 마치 얼음이 물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듯이 물질은 영혼과 정신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Theo, 128)고 한다. 물질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체적 존재상은 영혼과 정신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감각세계에 나타나는 영혼과 정신의 모습으로 “테오소피”에서는 아우라(Aura)를 들고 있다.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아우라는 신비한 영혼의 실체가 아니라 정신적 본성을 지닌 영혼의 표상이라고(Theo, 153)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우라는 감각을 넘어 영혼과 정신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영혼과 정신세계는 외적 감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Theo, 127).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세계에서의 인식과정과는 다른 길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질세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슈타이너는 감각으로 대표되는 물질세계의 극복을 정신세계에서 찾는다. 정신은 육체에서(물리적 세계) 완전히 이탈된 상태를 의미하며, 끊임없는 갱신의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재탄생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신의 갱신 과정은 초감각이 지배하는 고차원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테오소피”에 의하면, 고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길은 사고(thinking)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며, 사고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가는 인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Theo, 154). 인간의 사고는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오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고의 과정은 초감각 세계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영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Theo, 156-157). 초감각의 세계에서는 물질세계의 감각이 적용될 수 없고 오로지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Theo, 166-167). 초감각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객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질세계에서의 외적 감각만을 믿고 이것을 계발하려는 사람은 영혼과 정신세계에 대하여 결코 이해할 수 없다(Theo, 70).

감각 저편에 존재하는 고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테오소피”의 목적이기도 하다. “감각

저편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만 인간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슈타이너의 “테오소피” 서문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Theo, vii). 윤회를 통하여 계속되는 정신의 갱신 과정은 인간을 발전시켜 왔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진화의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감각의 저편에 숨어 있는 세계에 대하여 통찰함으로써 인간은 꿈꾸어 왔던 삶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는(Theo, 139-140) 것이다.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이해는 감각 저편에 존재하는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V. “테오소피”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1. 물질세계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슈타이너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피력한 인지학적 세계관을 의학, 건축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킨다. 그 중 가장 성공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학일 것이다. 슈타이너 전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강연문은 주로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교육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최초의 슈타이너 학교가 세워졌던 발도로프 공장의 이름을 따서 ‘발도로프 교육학(Waldorf education)’이라고 명명된 그의 교육학은 현재에도 가장 대표적인 대안교육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교육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피력한 인지학적 세계관은 발도로프 교육학의 전제가 된다. 물질세계와 영혼, 정신세계를 전제로 하는 그의 교육학은 물질 중심 교육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슈타이너는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의 비극은 사물의 참된 본성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지주의적 경향성은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성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사고를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인 사고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현대의 교육은 이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즉 물질주의는 물질에 관해 말할 수는 있지만 물질을 관통하여 작용하는 내면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Steiner, 1988; 168). 따라서 외적인 현상만 관찰하는 교육은 실제의 삶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인간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헤르바르트 교육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논의가 제외되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렸

다(Steiner, 2002; 38-39)고 보았다. 물질 중심의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것이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에서 인간을 육체와 영혼, 정신이 합치된 총체적 존재로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구했다.

“테오소피”에 따르면, 육체에 한정되지 않은 교육의 시작은 사고(思考, thinking)에서부터 시작된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사고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⁸⁾(Theo, 12). 광물체로서의 인간의 육체는 감각(sense)을 통하여 사물을 지각하게 되며,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은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인간은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 사물을 관찰하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육체적 존재성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Theo, 5). 따라서 인간의 육체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육체를 감싸고 있으며, 이를 유지시켜 주는 물리적 감각세계(physical sense-world)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는 감각적 물질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감각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각은 영혼 및 정신과의 교감을 통하여 인간을 동물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정신세계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고 인지해야만 한다. 독립적 존재로서의 육체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영혼 및 정신세계의 투영이며, 동시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육체는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핵심이며, 결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일부 종교의 경우, 종교적 성취를 위하여 육체는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육체적 학대를 통하여 물질적 존재로서의 육체를 극복하려고 하기도 한다.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인간의 육체는 정신적 존재가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요소, 정신적 존재로 승화하기 위한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건강한 영혼과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체는 단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감성, 의지, 사고 등으로 표현되는 영혼을 통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며, 이를 디딤돌 삼아 고차원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감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정신세계에 대한 탐닉을 통하여 육신을 멀리하는 구도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분명히 육체를 통하여 물질세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신세계를 통하여 물질세계를 관장하는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슈타이너가 영혼과 정신의 중요성을

8) The human body is so constructed that it is adapted to thinking.

강조하면서 이의 현상체로서 육체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육체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건강한 육체와 두뇌의 구조는 고차적 인식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Theo, 7-8) 말한다. 물론 육체의 교육적 중요성은 영혼과 정신이 결합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고와 의지의 결합을 통하여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징은 사고와 의지 사이의 참된 실천적 조화에 의존한다. 그리스에서는 체조(gymnastic)를 통하여 사고와 의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머리에서 손, 발로 흐르는 힘을 체조를 통하여 확대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춤을 추고 씨름을 함으로써 두뇌활동(head-activity)을 손발 조직과 상호 연관시켰다(Steiner, 1972; 92). 영혼과 정신이 결합된 인간의 육체는 모든 교육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육체는 결코 영혼과 정신세계로의 디딤돌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가는 존재였다.

“테오소피”에서 슈타이너는 물질세계에서 만들어진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단순히 육체만을 지닌 물질체로서가 아니라 정신적·영혼적 실체가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 존재로 본다. 인간의 육체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육체적 발달뿐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존재로서 발달해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며, 세계를 이해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전일균, 2013; 141-142). 슈타이너가 “테오소피”를 통하여 강조하는 육체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을 지닌 광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과 정신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생명체이며,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는 존재이다. 정신은 전생에서의 육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다음 생을 준비해 간다. 따라서 물질세계에서의 육체적 삶은 정신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신과 함께 발전해 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물질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육체는 당연히 교육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정신세계는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요소이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만, 그 목적은 육체의 삶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테오소피”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질에 관한 설명은 교육에 있어서 육체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영혼과 정신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물질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감각은 육체를 통해서 사물을 지각할 수 있지만 영혼과 정신세계까지는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영혼과 정신세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특별한 감각의 계발이 필요해 진다. 슈타이너는 육체를 통하여 눈과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을 성장시킬 수 있듯이 영혼과 정신도 이를 지각하는 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육체적 감각의 발달은 자연이 배려해 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감

각적 육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혼과 정신이 고차원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Theo, 73). 이러한 점에서 “테오소피”는 영혼과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정신 사이에 존재한다(Theo, 40). 인간의 육체는 감각을 통하여 물질세계를 인지하게 되지만, 이는 영혼과 정신의 투사체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신세계가 영혼의 세계를 거쳐 육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사고를 통하여 물질적 존재로서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Theo, 22), 진리와 영원한 가치 등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는 중간 단계가 바로 영혼의 세계이다. 인간은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통해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한다. 따라서 몸과 영혼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 안에서 합쳐지며 “나”는 몸과 영혼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나”의 활동은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감정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감각을 깨어나게 하며, 의지(will)는 끝없는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연결한다(Theo, 27). 이 속에서 영혼의 세계는 저차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감각적 영혼에서부터 고차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의식적 영혼을 갖게 된다(Theo, 81-86). 육체가 생명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는 순간, 영혼의 역할은 시작되는 것이며, 단순한 생명체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가치를 갖게 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위한 교육은 감각세계에서의 교육과는 다르다. 슈타이너의 교육학을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성과 과학으로 포장된 교육에서 벗어나 감성적 교육을 통하여 영혼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음악, 미술, 오이리트미와 같은 예술 교과는 영혼과 정신을 계발하는 중요한 과목이 된다. 그러나 슈타이너 교육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이유는 예술 관련 교과를 중요시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교육학 자체가 영혼과 정신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특정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육이 감성을 기초로 하는 예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통하여 육체의 의미를 전달 받은 정신은 물질세계와 대별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다. 슈타이너는 정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때, 사람들은 물질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Theo, 139), 올바른 정신적 통찰은 마음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게 해준다(Theo, 156)고 보았다. 정신세계에 대한 통찰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겪는 감각적 체험을 자신의 내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Theo, 17-18) 되기 때문이다. 정신세계에서의 이러한 작용은 직관(intui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정신작용으로서의 사고 과정은 직관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하여 영혼의 세계에 담겨 있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나”를 파악하게 된다(Theo, 30-31).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정

신적 자아를 갖게 되며, 결국에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가능해 진다. 물론 이러한 인식 능력은 특별히 수련 받은 사람들 만의 것은 아니다. 슈타이너는 누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하여 지식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슈타이너 교수법의 핵심이 된다. 형상화되어 있는 문자의 교육은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관념의 영역에 속해 있는 숫자의 교육은 정신적 활동의 영역을 전제로 하여 완성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통합적 형태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슈타이너의 생각이었다(Nobel, 1996; 250).

물질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교육의 형태는 슈타이너 외에도 다양한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천주교의 경우,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신앙의 신비’를 영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데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으로써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교에서의 영성은 다양한 수련(불공 : 佛供)을 통하여 얻어지는 단계로써 물질세계의 번뇌를 극복하는 해탈(解脫)과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열반(涅槃)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성의 과정이 종교와는 분리되어 ‘마음공부’ ‘힐링’ ‘마음 치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이들의 공통점은 현존하는 물질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신세계의 그 무엇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일균, 2013; 155-156). 물론 슈타이너의 교육학을 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종교적 수련 과정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은 인지학적 교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영혼과 정신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영혼과 정신은 육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다. 영혼과 정신은 육체와 소통하며 자신을 갱신해 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인식의 과정을 인간이 배제되는 객관적인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참여하면서 창조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발달과 인식의 발달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해에서 경험적인 세계에서 정신적인 세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다(최종인; 2004; 49). 이것이 바로 슈타이너 교육학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영혼과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아이들이 초감각 세계를 인지함으로써 전인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의 “테오소피”는 근대 이후의 교육학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중심의 주지 교육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초감각 세계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단초를 제공해 준다.

V. 결 론

슈타이너의 사상은 인지학이라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육체, 영혼, 정신의 통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는 정신과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질세계에 기초한 육체만으로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없으며, 물질의 겉모습만을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물질의 내면에 담겨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영혼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지학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그것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도하는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정신과학으로써의 진리를 제공한다. “테오소피”는 이러한 정신과학으로서의 인지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슈타이너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육체와 영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육체를 관통하는 영혼 및 정신의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어서 윤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의 갱신과정과 죽음이라는 육체의 소멸 과정 이후 나타나는 영혼과 정신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물질과 영혼 및 정신세계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감각 저편에 존재하는 초감각 세계로 이르는 인식의 길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은 의외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정신이 함께 하는 존재이며, 이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육체적 감각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감각 저편의 초감각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인지한다. 따라서 감각 저편에 존재하는 영혼과 정신의 세계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허구일 수 있다. 슈타이너의 사상이 신비학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테오소피”를 통하여 이러한 신비학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물질세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물질적 감각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물질을 지배하는 영혼과 정신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이고 이에 대한 접근은 관념적이며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과학이라고 지칭한 것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탐구도 감각을 기초로 한 물질적 세계에서의 탐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는 주관적 관념의 세계에 빠지기 쉬운 인식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과학화하려고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1900년대 이후,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의 과학적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뇌(brain)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Varela; 2013)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이러한 경향성과는 차이를 갖는다. “테오소피”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세계는 감각세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적 상태로서의 뇌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인지 구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본질과 인류의 문명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문명을 이어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슈타이너가 “테오소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육체와 영혼, 정신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 낸 인류의 문명에 관한 단초였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사상은 당연히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다. 교육이 물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며 결국은 총체적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의 “테오소피”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현재의 교육이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참고문헌

- 김용옥(2004).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서울: 통나무.
- 전일균(2013). ‘슈타이너의 교사론에 나타난 정신세계의 교육적 의미’. *교육문제연구*, 26권 3호. 139-159.
- 정승석(1999). *윤희의 자아와 무아*. 서울: 장경각.
- 정윤경(2009). ‘인지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4, No.1. 187-211.
- 최종인(2004). ‘발도르프교육학(Waldorfpädagogik)과 인지학(Anthroposophie)’. *한독교육학연구*, Vol.9, No.1. 39-52.
- Steiner, R.(1971). *Theosophie, translated H.B.Monges, Theosophy*. N.Y.: Anthroposophie Press.
- Steiner, R.(1972).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Steiner, R.(1977). R. Stebbing trans. *Rudolf Steiner, An Autobiography*. N.Y.: Steinerbooks.
- Steiner, R.(1988). *Practical Advice to Teachers*.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Steiner, R.(1992). *Discussions with Teachers*. Bristol: Rudolf Steiner Press.
- Steiner, R.(1993). *Knowledge of the Higher Worlds How is It Achieved ?*.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Steiner, R.(1919). *Allgemeine Menschenkunde als Grundlage der Pädagogik*. 김성숙 역 (2002).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인간학*. 서울: 물병자리.
- Baker, D.(2008), *Korean Spirituality*. 박소정 역(2012). *한국인의 영성*. 서울: 모시는사람들.
- Craig, E. ed.(1998).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1-10*. New York: Routledge
- Lindenberg, C.(1992). *Rudolf Steiner*. 이정희 역(1998). *슈타이너*. 서울: 한길사.
- Nobel, A.(1996). *Education through Art - Steiner School Approach*. Edinburgh: Floris Books.
- Varela, F.(2013). *The Embodied Mind*. 석봉래 역(2014). *몸의 인지과학*. 서울: 김영사.
- <http://timeline.britannica.co.kr>
- <http://www.waldorfworld.net/>

접수일(2014년 8월 20일), 심사일(2014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2014년 9월 22일)

전일균

현 소속 및 직위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전공 및 관심 분야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사론

이메일 : cheon@gwnu.ac.kr

ABSTRACT

An Educational Study about R. Steiner's “Theosophy”

Cheon, Il-Kyoun(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Rudolf Steiner's great works, “Theosophy” and its educational means. Rudolf Steiner was born in 1861, and died in 1925, after an extraordinary life of prodigious research in many fields. His study was based on “Theosophy”. He wrote “Theosophy” in 1904. “Theosophy” was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 This work was especially investigated human-being composed body, soul, spirit, and how this three side in human was effected to his education and his living life. In this book, Steiner said that every human-being through his body he perceives all about the physical world; through his soul he constructs for him-self his own world; through his spirit a world reveals itself to him that is exalted above both the others. And so he explains how bodily nature, soul nature and spirit nature complement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human beings. In “Theosophy”, Steiner said that whoever looks for paths that lead beyond this world of the sense will soon learn to understand that human life only gains in worth and significance through insight into another world. Steiner has indicated those necessary capacities which “slumber within every human being” has shown how they can be awakened. In this means, “Theosophy” has many suggestions. The study about “Theosophy” is inspired by a belief in the power of the spiritual world in human-being's real life and many educational suggestions our life in physical world.

Key words: Rudolf Steiner, anthroposophy, theosophy, waldorf education